

KISTEP 통계 브리프 2008-3호

외국인 직접투자의 잠재력 분석

- UNCTAD Inward FDI potential Index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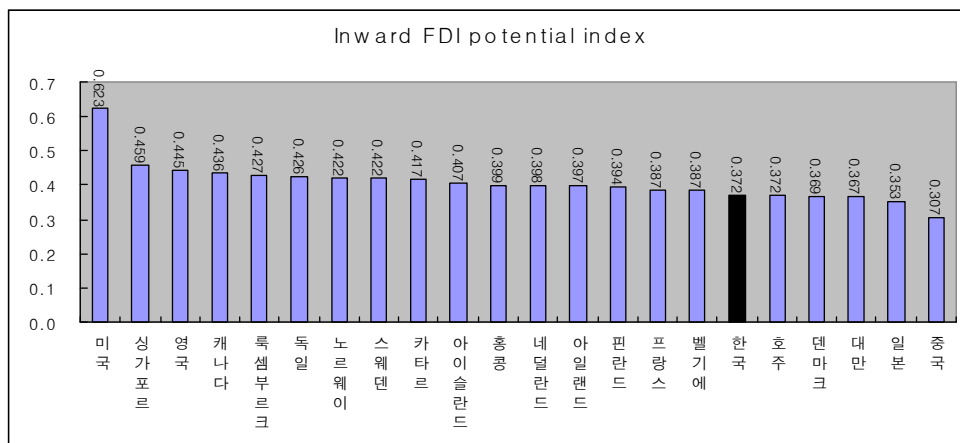
□ 개요

-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는 관련 국가나 정책입안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현재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잠재력을 비교함
-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잠재력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Inward FDI potential Index를 산출하고 있음
 - 외국인에게 경제적 이점이라고 생각되는 요소인 12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그들의 평균을 산출하여 지수로 나타냄
 - 1인당 GDP, 10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 GDP 대비 R&D 투자 비율, 서비스 수출의 세계시장 비율등 12개의 지표¹⁾를 이용함

□ Inward FDI Potential Index 분석

- 우리나라의 전체 비교 대상 141개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함
 - 미국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싱가포르, 홍콩, 카타르 등 소규모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시아 경쟁국(일본, 중국, 대만)에 비해 약간 앞서 있는 수준임

<그림 1> Inward FDI Potential Index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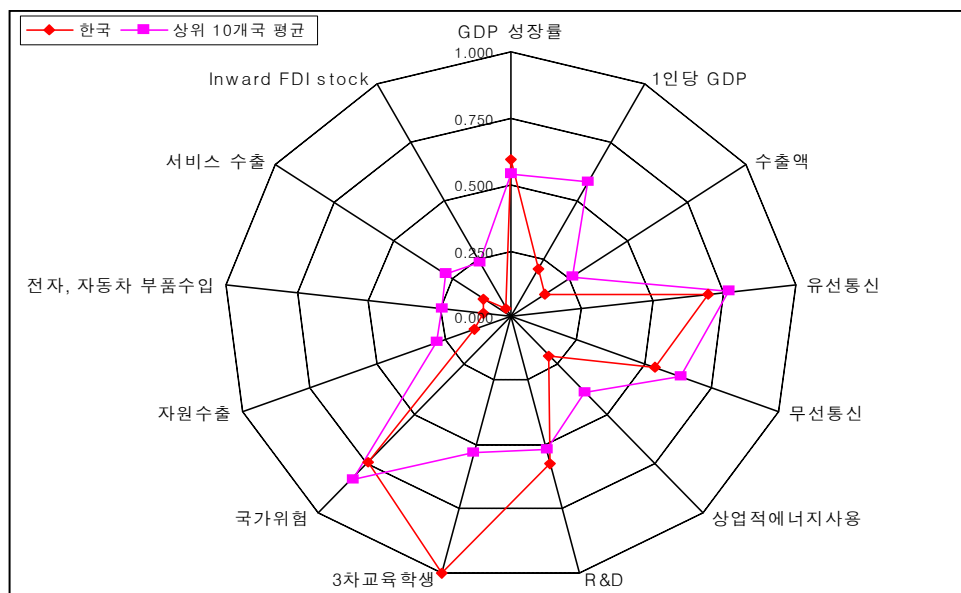


1) 1인당 GDP, 지난 10년간의 GDP 성장률, GDP에서의 수출의 비율, 1000명당 전화 회선수와 휴대전화수의 평균, 1인당 commercial 에너지 사용량, GDP대비 R&D 투자 비율, 총인구의 3차교육 학생의 비율, 국가 위험(Country Risk), 자연자원 수출의 세계시장 비율,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부품 수입의 세계시장 비율, 서비스 수출의 세계시장 비율, 세계 FDI inward stock의 비율 등 12개 지표 (2005년 또는 2003-2005년 3년 평균 기준임).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ctad.org/Templates/WebFlyer.asp?intItemID=2470&lang=1> 를 참조

□ 세부 지표 분석

-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의 잠재력을 높여주는 요소는 수준 높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인재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등임
 - 높은 수준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인재의 수를 나타내는 3차교육(초대졸)이상의 학생의 비율은 비교 대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
 - 또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10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과 기술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GDP 대비 R&D 투자가 상위 10개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약 1.1배 수준)
- 반면 기존의 FDI에 대한 이점이나 투자 환경과 수요의 깊이, 선도 다국적 기업 시스템의 참여 정도 등에서 약점을 보임
 - 기존의 FDI에 대한 이점이나 투자 환경을 나타내는 Inward FDI stock의 전세계 비중은 상위 10개국의 약 1/6 수준으로 가장 약한 부문임
 - 수요의 깊이를 나타내는 1인당 GDP와 선도적 다국적 기업의 시스템에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전자, 자동차 부품의 수입의 세계 시장 비율, FDI의 2/3을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의 수출의 세계 시장비율 등은 상위 10개국의 40% 수준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2> 세부지표별 표준화 값



<표 1> 주요국과의 세부지표 비교 (한국 강점 부문)

	10년간 GDP 성장률 (%)	GDP 대비 R&D 투자(%)	3차교육 학생수 비율(%)
한국	4.5	2.6	6.74
미국	3.2	2.7	5.72
싱가포르	4.6	2.2	4.09
영국	2.8	1.9	3.78
중국	8.8	1.4	1.48
일본	0.9	3.1	3.15

<표 2> 주요국과의 세부지표 비교 (한국 약점 부문)

	1인당 GDP (USD)	전자, 자동차 부품 수입의 전세계 비중(%)	서비스 수출의 전세계 비중 (%)	Inward FDI stock의 전세계 비중(%)
한국	14,553.6	1.42	1.81	0.63
미국	39,832.8	14.41	15.35	16.22
싱가포르	24,688.8	3.30	2.03	1.82
영국	34,392.3	4.60	8.44	7.69
중국	1,318.3	7.49	2.77	2.68
일본	34,876.6	3.29	4.31	1.03

□ 외국인 직접 투자와 잠재력 비교

-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성과 지수(Inward FDI performance index)²⁾가 115위로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부진
 -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수리남 등 소규모국가 높은 순위에 위치
-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잠재력이 현재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비해 높은 Below potential 그룹에 포함되어 있음
 - 잠재력은 높으나 여전히 외국인 직접 투자는 GDP에 비해 비교국가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분석을 실시한 88년 이후 계속 Below potential 그룹에 포함됨
 - 싱가포르, 영국, 중국은 Front runners그룹에, 미국,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Below potential 그룹에 포함

2) 각 국가의 경제 규모를 고려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수화한 것임. 한 국가의 GDP 대비 FDI inflow와 전세계 GDP대비 FDI inflow의 비율로 나타냄.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게 받는 것을 나타냄

<표 3> Inward FDI performance index 순위

순위	1	2	3	4	5	6	47	62	115	118	136
국가	아제르 바이잔	브루 나이	수리남	홍콩	룩셈 부르크	싱가 포르	영국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지수	17.87	13.5	12.68	9.16	9.04	8.23	2.43	2.02	0.55	0.46	0.07

<표 4> 외국인 직접 투자와 잠재력 비교³⁾

	HIGH FDI PERFORMANCE	LOW FDI PERFORMANCE
HIGH FDI POTENTIAL	Front-runners 그룹 싱가포르, 영국, 중국, 홍콩, 아이슬란드, 태국, UAE 등	Below potential 그룹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핀란드, 덴마크, 대만, 스위스 등
LOW FDI POTENTIAL	Above potential 그룹 알바니아, 콜롬비아, 이 집트, 모로코, 루마니아, 베트남 등	Under-performers 그룹 방글라데시, 가나, 인도, 파라과이, 토고, 예멘 등

□ 시사점

-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도적 다국적 기업의 국내투자 또는 합작 등을 늘려 국제적 교류를 강화해야 하며
-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
 - 한편으로 FTA등으로 인한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글로벌화된 경제체계에 대비하면서도 우리의 외국인 직접투자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자료원 : UNCTAD Homepage

<http://www.unctad.org/Templates/Page.asp?intItemID=2468&lang=1>

* 자료관련 문의 : 정보분석팀 (02-589-2949, 2892)

3) 국가군을 Inward FDI potential과 performance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함

- Front-runners 그룹: 높은 potential과 performance를 보이는 국가
- Above potential 그룹: 낮은 potential과 높은 performance를 보이는 국가
- Below potential 그룹: 높은 potential과 낮은 performance를 보이는 국가
- Under performance 그룹: 낮은 potential과 performance를 보이는 국가